

## 소록도 '100년 소원' 풀었다

육지 연결 소록대교 내일 임시 개통  
“올 추석 아들 손 잡고 물내음 맡을 것”

소록도 한센인들에게 올 추석은 어느 때와 다른 감화로 다가온다. 죽어서야 나갈 수 있었던 천형(天刑)의 땅, 한센인들의 고향이자 유배지였던 소록도(小鹿島)가 육지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센인이자 시인이었던 한하운이 자유와 육지를 갈망하며 지었던 시 '파랑새'의 한 구절 '나는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리'처럼 죽어 새가 되어서라도 육지를 밟아 보고 싶었던 한센인들의 원과 한이 풀리게 된 것이다.

고흥군 녹동항(도양읍)과 소록도를 연결하는 소록대교가 추석을 맞아 22일부터 일주일간 임시 개통된다. 소록대교는 총 연장 1천160m(왕복 2차선)로 임시 개통기간 동안에는 사람만 통행이 가능하며, 정식 개통은 내년 6월이다. 소록도 자치회장 김정행(68)씨는 “육지와 직선으로 500m 밖에 되지 않지만 예전에는 유배지보다 더 심했지요. 한센인들은 육지와 연결된 다리를 바라보며 평생의 한을 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소록도에 수용된 이후 단 한번도 바깥세상에 나간 적이 없는 한센인 정모(80) 할아버지. 추석을 앞둔 정 할아버지의 가슴도 설레임으로 뛰고 있다. 오래 전에 부자의 연을 맺은 양아들이 수시로 찾아와도 바깥세상은 다른 사람의 얘기일 뿐이었다. 정 할아버지는 “올 추석에는 아들 손을 잡고 다리를 건너 물내음을 맡아야겠다”며 희미하게 웃었다.

소록도에 들어온 지 50년이 넘었다는 한센인 이모(70)씨는 “예전에는 남의 눈을 피해 그리운 고향집에 다녀오다 배가 끓이면 녹동항 물가에 있는 판자집에서 가마니를 덮고 자기 일수였다”면서 “태풍이 오거나 바람만 세게 불어도 배가 뜨지 않아 한센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병문안차 찾아온 가족들의 불편도 컸다”고 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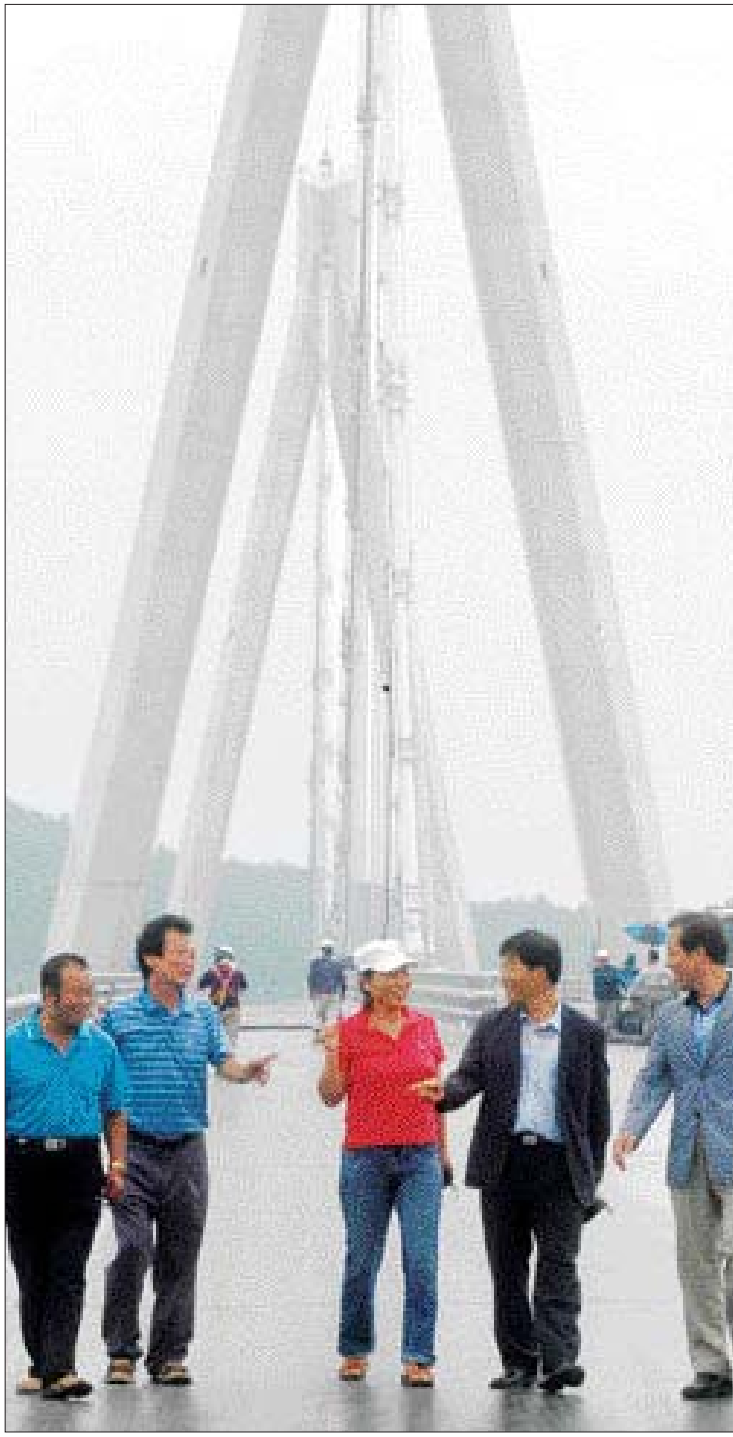
소록대교는 한센인들에게 무엇보다 큰 심리적 안정감과 해방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한센인들은 자식과 손자들이 배를 타지 않고 육지와 연결된 다리를 통해 자신들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다.

소록도가 500여m 떨어진 바다를 두고 마주 선 녹동항의 주민들도 반가워하기는 마찬가지다.

주민 김성철(56)씨는 “다리 연결은 평생을 한으로 지내신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상권이 침체된 녹동항도 다리 연결로 인해 활성화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록도는 면적 4.42km, 해안선 길이 14km의 작은 섬이다. 1910년 외국선교사들이 이곳에 한센병 환자들을 수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일제가 ‘소록도 자해병원’을 개원했다. 자해병원은 1982년 국립소록도병원으로 바뀌어 한센인 치료 전문병원으로 거듭났다. 현재 소록도에는 644명의 한센인과 그 가족, 의료진 등 900여명이 살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고흥=주각중기자 gju@



임시개통을 사흘 앞둔 지난 19일 소록대교를 보러 온 도양읍 주민들이 담소를 나누며 다리 위를 걷고 있다. /고흥=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광산구 주택투기지역 해제

전국 12곳...미분양 2만5천가구 매입 추진

광주시 광산구 등 전국 12개 지자체가 지방 주택경기 회복 차원에서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또 정부가 2만5천가구의 민간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이 발표돼 향후 지방 미분양 해소 등 부동산시장 회복 여부를 놓고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10면〉

정부는 20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시 광산구를 비롯, ▲대전시 중구·서구·대덕구 ▲

청주시 상당구·흥덕구 등 12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지난 2005년 6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년3개월만에 ‘투기’ 규제에서 제외됐다.

특히 광주의 경우 광산구의 투기지역 지정 이후 전반적인 시장침체가 가속화됐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 내

주택시장 거래 회복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관련 금융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해당 지역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해제되고, LTV(담보인정비율) 적용 기준도 40%에서 60%로 확대돼 주택 관련 자금 마련이 쉬워진다. 투기지역 해제에 오는 28일 공고할 예정이며,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또 지방의 민간 미분양주택 2만5천여 가구를 사들여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경호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은행 분리매각 검토

우리금융지주사...가격 최저 1조900억원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광주은행의 분리매각안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광주은행 등 금융권에 따르면 재경부가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우리금융지주에서 분리해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

재경부는 이를 위해 최근 ‘분리매각안 검토의견’이란 보고서를 금융연구원으로 받아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하 매각심사소위원회 오는 28일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광주은행 분리매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분리매각 추진의 배경은 우리·광주·경남 등 우리금융그룹내 3개 은행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데다 일괄매각보다는 자회사로 우선 분리해 매각하는 것이 기업가치 상승으로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지주가 소유한 광주은행 지분 99.9%(4천408만주)를 전량 매각할 경우 매각가격은 주당장부가(BPS) 2만1천원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5~1.7배로 가정할때 1조 900억~1조2천360억원으로 추정된다.

매각 방안으로는 ▲비은행 금융그룹 인수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으로의 인수·합병 ▲지방은행간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매각 등 3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방안은 한국금융지주·교보·동양 등 은행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금융그룹에 의한 인수 가능성이 있다. 이들 비은행 금융그룹의 경우 2009년 시행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은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타 지방은행에 의한 인수는 지역민

들의 정서 및 정치적 요인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희박하고, 지방은행간 금융지주회사 설립도 분리매각이후 가능한 시나리오다.

특히 광주상공회의소 등에서 요구해 온 지역 상공인들이 의한 인수는 다수 상공인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산업자본으로 간주돼 발행주식의 15%를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는 은행법과 금산법에 위배돼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분리매각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어떤 입장도 전달 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분리매각을 전제로 본다면 지역 상공인에 의한 인수는 15% 지분 확보를 위해 1천 6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도 실익이 없어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금융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리매각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

## 손학규 잠적...신당 경선 중대국면

孫측 “당권거래설 규명 등 특단 조치를”  
鄭측선 “孫-李 연대 움직임” 정면 대응

조직·동원선거에 항의, 자택침거에 들어갔던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후보가 20일 돌연 지방으로 잠적함에 따라 경선 파행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정동영 후보 측이 이번 파동의 배후에 ‘손-이(손학규-이해찬) 연대론’이 있음을 주장하고 나섰으며, 손 후보 측은 정 후보와 김한길 의원의 ‘당권거래설’을 정면으로 제기하는 등 신당 경선은 혼미한 상황을 거듭하고 있다.

손, 정 후보 진영의 갈등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남은 경선일정이 과연 제대로 치러질 수 있는지는 우려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손 후보의 이탈로 경선이 ‘3자’에서 ‘양자’ 구도로 바뀌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손 후보는 20일 오전 부인 이윤영 씨와 함께 서울 마포구 자택을 나서

서울 합정동 질두산 성지와 경기도 화성 남양성지를 방문한 뒤 지방으로 잠적했다.

손 후보가 자택 침거에 이어 돌연 지방으로 잠적함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후보 사퇴 등 중대 결심을 위한 장교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후보 캠프에서는 “손 후보가 경선에 불참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당 지도부가 구태정치 진상조사위 구성, 당권밀약설 실제 규명, 국민 경선참여 특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와 중진들은 경선 파행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손 후보에 대한 설득에 나서는 한편, 경선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진상조사를 서둘러 구성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른바 21일계 오충일 신당 대표와 손

후보의 면담이 이뤄지면서 손 후보가 경선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김원진, 문희상, 김근태, 유인태 의원과 정대철 전 의원 등 신당 중진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회동, 손 후보의 조속한 경선 복귀와 당 지도부의 경선 문제점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정 후보 측 김현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손 후보 토론 불참 등 사건의 배경에 ‘손-이 연대’ 움직임이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주장, 또 다른 파문이 일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모방할 수 없는 **월**만의 가치

월의 사투리는 특이성뿐만이 아닙니다. 낯선 나라와 살아가는 월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월의 사투리는 특이성뿐만이 아닙니다. 낯선 나라와 살아가는 월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월의 사투리는 특이성뿐만이 아닙니다. 낯선 나라와 살아가는 월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월의 사투리는 특이성뿐만이 아닙니다. 낯선 나라와 살아가는 월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월의 사투리는 특이성뿐만이 아닙니다. 낯선 나라와 살아가는 월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월의 사투리는 특이성뿐만이 아닙니다. 낯선 나라와 살아가는 월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월의 사투리는 특이성뿐만이 아닙니다. 낯선 나라와 살아가는 월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월의 사투리는 특이성뿐만이 아닙니다. 낯선 나라와 살아가는 월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